



1960년대 말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서울과 수도권의 용수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1972년 건설되었습니다.

소양강댐은 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용수와 전기자원을 지원하였고, 계절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댐은 지난 50년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 도시건설, 국민 물복지 향상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소양강댐의 건설과 함께 출발한 (사)한국대댐회 역시 우리나라 댐 역사와 함께 해오며 불모지와 같은 수자원 분야를 개척하고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댐 관리와 운영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진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간 댐-하천 연계운영 시스템, 디지털 트윈과 자율 주행 드론 등 다양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고(寶庫)로서 댐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댐이 더 많은 환경적 가치 실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댐효용증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댐 운영·관리에 관한 발전과 변화는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다양한 설계·시공·운영 경험과 과감한 첨단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과정에 (사)한국대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물 재해 예방과 새로운 물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어 기존 댐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로서의 새로운 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사)한국대댐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난 50년 동안 국가 댐 정책을 지원하고 기술발전을 이끄는 데 앞장서 온 것처럼, 미래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산학연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댐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 선보이는 「(사)한국대댐회 50년사」가 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면서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사)한국대댐회 창립 50주년 그리고 「(사)한국대댐회 50년사」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그 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